

보도 일시

2025.1.6.(화)

배포 일시

2025.1.6.(화)

국립대전현충원 1월 이달의 영웅스토리 선정

- 1월 이달의 영웅스토리 선정 인물, 건국훈장 독립장 '나창헌 순국선열'
- 국립대전현충원, 나창헌 순국선열 묘역 참배, 유족에게 선정패 전달

- 국립대전현충원(원장 직무대리 김상현)은 6일(화) 오후 2시, 2026년 1월 이달의 영웅스토리 인물로 선정한 나창헌 순국선열의 묘역을 참배하고 유족(며느리, 증손자)에게 선정패를 전달하였다.
- 1896년 평안북도 희천군에서 출생한 나창헌 선생은 1919년 경성의 학전문학교 재학 중 3·1운동에 참가하면서 1936년까지 17년 동안 국내와 중국을 오가며 독립운동을 했다.
 - 나창헌 선생은 1919년 대한민국청년외교단에서 활동하며 8월 29일 만세시위를 추진하였고, 같은 해 대동단에 가입하여 11월 의친왕 이강의 상하이 망명을 주도하였다. 상하이 망명 시도 실패 후 11월 28일, 대동단의 종로경찰서 앞 만세시위를 추진했다.
 - 1920년 중국 상하이로 망명하여 철혈단을 조직했고, 1922년 10월 한국노병회 결성에 참여했다. 1925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무차장 겸 경무국장에 선임되었고, 같은 해 6월 정위단을 조직하여 단장을 맡았다.
 - 선생은 정위단을 개편하여 1926년 1월 병인의용대를 결성했다. 병인의용대는 같은 해 4월과 9월 상하이 일본총영사관 폭탄투척 의거를 감행했고, 밀정 처단 등 의열투쟁을 전개했다. 이로써 일본 재외공관의 위상을 실추시켰고, 한국인의 독립의지를 세계만방에 떨쳤다.

- 이후 홍사단 활동, 병인의용대 재건 등 독립운동에 힘쓰다 1933년 거처를 사천성 만현으로 옮겼다. 그곳에서 만현의원을 경영하면서 독립운동에 헌신했다. 1936년 병을 얻어 투병하다가 40세를 일기로 순국하였다.

- 국립대전현충원은 올해부터 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월 「이달의 영웅스토리」 인물로 선정된 안장자의 유족에게 선정패를 제작하여 전달할 예정이다.

붙임 사진 2부. <끝>

사진 1. 2026년 1월 이달의 영웅스토리 선정패 증정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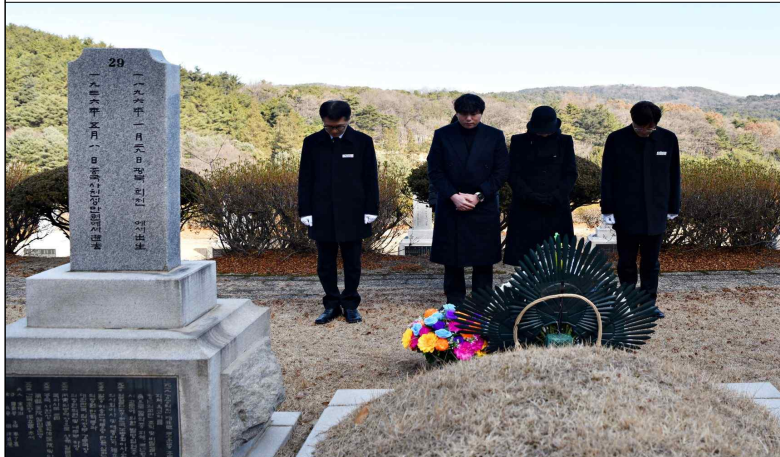


사진 2. 나창헌 순국선열 묘역 참배



담당 부서	국립대전현충원 현충과	책임자	팀 장	유지현 (042-820-7060)
		담당자	주무관	김병철 (042-820-7061)